

# Yullin Newsletter

NOV. 11

열린교회 신문 2022.11 vol.329



말씀솔루션

## 희망하지 않는 것의 정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 혹은 낙망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잘못입니다. 흔히 낙심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낙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낙망할 때에 뒤따라오는 일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범죄와 실패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낙망은 희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의 정체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겠다는 마음의 완고하고 집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엮어서 마지막 귀결이 희망이 없는 것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낙망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자기암시적인 희망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낙망한 자신을 잠시는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인 삼은 삶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질서에 따라 누리게 되는 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반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는 방식은 자기암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신앙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분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 때문에 발견한 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

### <감사> 설교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범사에 감사하는 길/광야에서 감사함은/감사함으로 구함/교제와 감사/은택에 감사하라/교제와 감사/도우심의 돌/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 믿음과 감사 10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권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김남준 담임목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6-17)

###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약 1:13).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시험은 신자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약 1:14). 바로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두려움 정도로 강하게, 때로는 의식 못할 정도로 약하게, 때로는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측은하게 자기의 정체를 감춘 채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 고통 받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에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약 1:16).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 하나님의 선하심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본문은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온갖 좋은 것들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데로부터 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지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나쁜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죄로 이끌고, 죄는 더 큰 악에 빠지게 합니다(롬 8:6).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롬 8:32).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롬 8:32)?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동기로

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약 4:3).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가셨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실 때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꼭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분께 나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의 불변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본문에서 '빛들의 아버지'는 광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좀 더 올라가니까 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검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그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거기에는 빗물도 없고, 구름도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이 생겨납니다(시 77:6-10). 무엇 때문입니까?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느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함이 없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을 보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시험에 들었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애 3:25).

### 그분을 의지하라

신자가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히 11:6).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선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파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때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믿



시험은 신자로 죄를 짓게 해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함 없으시며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시험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좋은 것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만 그분을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의 지혜로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에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속삭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의 깊은 감화와 인도를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몰두하지 않

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시험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시험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 맺는말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시련의 폭풍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든 채 그냥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기에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십니다(딤후 6:17).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십니다(엡 1:3).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사 61:3).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폭풍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

### ☎ 담임목사 동정

- 11.2-4 전주 서문교회 집회 설교
- 11.6 교사수련회 특강
- 11.7 대신대 열린교회 탐방
- 11.8-9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코리아 카운슬 (제주)
- 11.12 유아세례식
- 11.13 학습-세례-입교식
- 11.18 동서울노회 원로 및 은퇴목사 감사예배
- 11.19 정기당회
- 11.20 신임제직교육 강의
- 11.21 동서방기독교 문화연구회 세미나 특강
- 11.23-25 팀리더 수련회
- 11.26 고등부 문화콘서트

### 📻 라디오 설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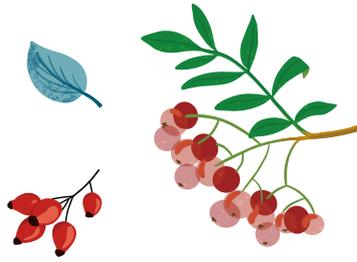
- 서울기독교방송 (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 🌐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가을말씀사경회 취재

# 평화, 평화를 주소서-



**프롤로그 -**  
 ‘화평’, ‘평화’, ‘화목’ 등의 어휘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불화(不和)’의 고통에 진저리를 쳐보지 않으면 ‘평화(平和)’는 하나의 관념적인 단어로만 머리에 간혀있을 게 분명하다. 사경회를 갈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든 선포될 말씀의 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필자는 금번 가을 사경회 말씀 광고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환호를 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내 품에 안겨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로 압축하면 ‘평화’의 결핍, 화평의 부재였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이웃, 나라... 당연히 ‘우리 땅에 평화를 주소서’라는 사경회 주제는 말씀을 듣기도 전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신앙의 세 생명줄 -**  
 가을말씀사경회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새벽(5시 15분)과 저녁(7시 30분) 사흘간 새벽 시간에는 ‘신앙의 세 생명줄’, 저녁 시간에는 ‘우리 땅에 평화를 주소서’가 주제였다. 신앙의 세 생명줄은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의 ‘눈물의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 ‘불붙는 은사’이다. 신자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진실한 믿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은사는 사용해 봐야 자신의 은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 불쏘시개가 되어 은사에 불을 지피고, 묵힌 은사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 필자에게 여운처럼 남아있다.

가을말씀사경회 후기

#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진기웅 장년6교구  
cani6262@naver.com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벽기도를 참석하는 동안에도 저의 마음은 분주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가정과 회사의 바쁜 일상과 잦은 출장,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온전치 못한 나의 연약함 사이의 갈등 등으로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사경회에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의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의 출장과 행사 일정으로 사경회에 나오기 분명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번 사경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된 출장이었

**평화, 평화를 주소서 -**  
 사흘간의 저녁 말씀은 세 축의 평화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과 땅(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다. 앞의 둘은 운명공동체를 이루며, 이것은 세 번째 관계가 원인이 된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인간사회는 평화를 누리며, 자연을 애호(愛護)하게 되기에 자연은 인간을 향해 좋은 것으로 보답한다는 것이다. 이 삼중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형이다.



사경회 첫날 말씀의 주제는 레위기 26장 3-5절로 ‘땅과 사람의 평화’였다. 땅과의 평화는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을 파괴할 때, 자연은 반격을 가하여 인간에게 더 이상 안전과 배부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COVID-19, 지구온난화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둘째 날 말씀은 레위기 26장 6-7절을 본문으로 한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주제였다.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무풍지대를 약속하신 게 아니다. 대적들이 있고, 전쟁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신다.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의 근원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축진제는 ‘교만’, ‘자기중심적인 태도’, ‘무례함’임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날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로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에 관한 내용이었다. 성경 전체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안의 평화를 온 세계가 누

리길 원하셔서 법칙과 질서를 만드셨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평화로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불화를 청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 -**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다. 평화를 회복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평화를 주신다. 그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오직 순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사랑한다. 계명은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음성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에필로그 -**  
 필자는 ‘창조목적’이라는 단어를 회심하고서도 한참 후에 접했다. 이것은 지금 들어도 웅장한 대서사를 대하는 감동이 있다. 성도라면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인간이 창조 목적으로 돌아갈 때 지고(至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온맘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창조목적이라는 거대 담론은 아름다운 삼중구조의 해석으로 펼쳐진 것 같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평화를 이루는 완전한 그림이다. 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아름다움인가! 평화가 깨어져 탄식하는 이 땅을 볼 때 깊은 탄식이 나온다. 물론 가장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리라. 주님, 평화를 원합니다!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경험과 욕심으로 재단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경회 때마다 은혜를 주시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시 사경회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바라는 이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아니, 더욱 커져나가기, 이런 마음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의 마음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땅 사이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

세빛교실 후기

# 자녀들에게 줄 가장 귀한 선물



주지현  
영아부교사  
zizi0366  
@hanmail.net

빛으로 오신 예수님/내 마음 밝혀 주셔서/예수님 닮은 모습으로/날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찬양 가사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어여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영아부, 유아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말씀 잔치, 세빛교실이 지난 9월에 3주간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차였던 이번 세빛교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모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마련된 만큼 말씀에 집중된 시간과 다양한 현장 활동, 그리고 가정에서도 매일의 실천 활동들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



로 꾸려졌습니다.

저는 영아부 교사로 세빛교실을 섬기는 동시에 유아부 학부모로서도 자녀와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의 섬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자로서 무력무력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목사님들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서 깊은 위로와 격려, 동지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아부가 있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약해져만 가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13개월부터의 아이들을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일원이자, 한 생명의 귀한 예배자로, 거룩한 언



약 자손으로 여기기에 더더욱 책임과 소명을 다하며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5살 된 딸 아이가 세빛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교재를 가지고 하는 매일의 실천 과제(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말씀 이야기, 교리 문답 등)를 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과제가 없던 주일 밤, 잠 들었던 아이가 자다가 깨서는 울먹이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세빛교실을 못했어요. 어떡해요?" 부모인 제게는 3주간의 교육이라 여겨졌지만,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에게는 말씀에 꼭 잠기어 기뻐하며 누리는 소중한 날들이었음이 신비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길 가운데 부모이자 교사가 되는 특권을 더욱 귀히 여기며 아이들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



백선영  
장년6교구  
ohyes8935  
@gmail.com

결혼 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출산만 하면 신앙으로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산후 우울증과 여러 가지 환경들은 제 신앙조차 울곧게 지킬 수 없을 만큼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육

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기도하며 바라왔던 대로 아이를 양육하기 보다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내 뜻 내 욕심대로 육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던 때에 광고를 통해 세빛교실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빛교실을 통해



가장 먼저는 신앙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싶었고, 아이 또한 주일 외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의 반석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을 갖길 바랐습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함께 양육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통해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이 또한 그 시간들을 기대함으로 참여하였고, 세빛교실이 끝나고 나면 배운 찬양과 말씀을 그 작은 입술로 고백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의 양보다는 말할 수 없는 깊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세빛교실을 통해 알려주신 가르침들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저와 주안이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빛교실이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 교회 소식

### 2023년 신입제직교육

- 일시 : 11월 6, 13, 20일(주일) 오후 5시
- 대상 : 2023년 신입제직 대상자로 지정된 지체 (계시판 참조)
- 신청 : 교회 홈페이지 및 본관 1,3층 로비 신청함
- ※ 교육 수료자에 대한 면담이 12월 3일(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 교역자 임명

- 장년 4교구 전도사 : 양승희 전도사
- 사랑부 담당교역자 : 최영광 전도사
- 임명일자 : 12월 1일

### 유아세례 및 학습 세례-입교 예식 안내

- 유아세례 : 11월 12일(토) 오후 4시
- 학습 세례-입교 : 11월 13일(주일) 2부 예배시
- 장소 : 본관 3층 예배실
- 문의 : 김태영 목사, 박창일 집사

### 주요사역일정

- 2일(수) 기도세미나
- 6일(주일) 교사수련회 / 신입제직교육 개강
- 12일(토) 유아세례식
- 13일(주일) 학습 세례-입교식
- 17일(목) 노숙자 섬김의 날
- 18일(금) 원로 및 은퇴 목사 섬김의 날 / 교구 연합 금요기도회
- 19일(토) 당회수련회
- 20일(주일) 추수감사주일
- 23일(수) - 25일(금) 팀리더 수련회
- 26일(토) 청년부 섬김의 날

## 새가족

### ▶▶ 장년

- 이동석(58) 최홍열(46)
- 정의현(90) 전옥순(50)
- 김한진(87) 조덕환(84)
- 강보라(91) 정현정(86)
- 장정인(75) 장은혜(83)
- 신혜경(73) 홍지영(73)
- 신취수(85)
- 이영란(87)
- 이미애(62)
- 김월순(64)
- 조정훈(78)
- 김하나(85)
- 유준상(61)
- 양미란(65)

### ▶▶ 청년

- 강예진(97)
- 박성령(92)
- 안은지(83)
- 조순신(81)
- 황현아(00)
- 이만기(86)
- 노민아(90)
- 민형원(04)
- 허정호(00)
- 박동준(95)
- 유리윤나(93)
- 이한별(94)
- 송병규(81)
- 장세원(88)

<어린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독후감대회 최우수상 수상작

#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찬양



구다울 5학년

 <어린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헌금,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예배, 헌금, 찬양을 드렸는지 돌아켜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예배를 마음을 다해, 바른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드리지 않았고, 중간에 지겨워서 집중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기도 시간에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부끄러워 말 없이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려왔었다.

헌금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렸다. 책에서는 미리 준비한 상태로, 넘치도록, 온 마음을 다해 헌금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헌금을 그냥 가볍게, 습관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냈다. 찬양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는 마음으로, 향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찬양을 가요 부르듯, 부르고 싶은 찬양만 열심히 불렀다.

앞으로는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책에 나온 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책에 나온 대로 예배를 드려봤다.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니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떠올랐으며, 나의 죄 때문에 후회스럽기도 했다. 가장 기

역에 남은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무사할 수 있었다는 가사여서 내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설교 시간에는 나의 죄가 떠올라서 하나님께 죄송했다. 내가 지었던 죄의 예를 들면 무엇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한 죄, 그냥 조금 화가 난다고 화를 못 참고 친구나 부모님께 화를 낸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 예를 들면 책을 더 사랑한 죄 등이 있다. 또, 전심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렸다.

전심을 하나님께로 돌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하며 드려서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크게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감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동을 크게 받았고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수없이 많이 속을 썩었는데 계속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웠고, 감사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고 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덕분에 많은 도움과 행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이 예배의 감격에 빠진 뒤 달라진 것이다. 이상하게도 성경이 읽고 싶어진다. 다음 주일에 드릴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렌다. 또, 개학을 하면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예배의 감격에 빠지기 위해 전도사님을 바른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하겠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믿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기도도 내가 부끄러워했지만, 앞으로는 말을 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기도하겠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헌금 낼 돈을 먼저 준비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며 내겠다. 그리고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기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겠다.

찬양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부르겠다. 모든 찬양을 열심히 부르려 노력하겠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에 제대로 빠져보고 싶다. ☆

(※ 지난 7월 10일부터 한달간 생명의말씀사 주관, 초등학교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대회의 수상작입니다)



2022 **교사 수련회**  
**교사, 변함 없이 신실한 사람**

강사 **김남준 담임목사**(열린교회) / **홍민기 목사**(현 라이프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장소 **열린교회 본관 1층 및 3층**  
대상 **교회학교 전 교사**



새구역공과 소개 / <깊이 읽는 팔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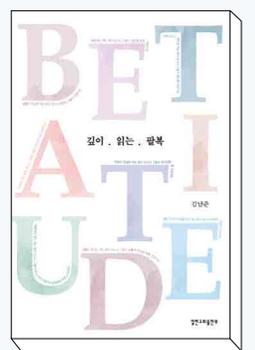
## 행복은 사람됨입니다

사잇공과로 진행중인 <복음을 전할 사명과 기도>를 이어 하게 될 공과는 <깊이 읽는 팔복>입니다. 팔복에 관한 설교는 1994년 '팔복강해 I', 1998년-99년 '팔복강해 II', 2001년 '팔복강해 III', 2013-14년 '팔복의 사람'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정리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 공과 주제로 선정이 되면서 <깊이 읽는 팔복>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행복에 이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의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개인적 평안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 또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자기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행복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신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행복은 우리가 잡고 싶지만, 잡으려 하면 멀리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린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와 완전한 관계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팔복은 사람됨 때문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 이 책을 공부함으로 팔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



김성구 목양센터장  
holydove@hanmail.net

11월 추천도서

### 성수주일 김남준/익투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일의 의미와 그것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검토는 물론 역사적 맥락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처한 시대적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작은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여러 입장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기원과 성수의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책에서 주일성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피할 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방종으로부터 교회의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주일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선취적으로 누리는 날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자서문 중에서)

특별작정기도짧은후기

-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도 빌드업을 통해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장년5교구)
- 기도 빌드업 사역을 하는 만큼, 기도 자체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청년부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리더들이 기도로 섬기기를.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고, 청년 1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리더 기도회를 만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새롭게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요셉(청년부)
-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서 조바심으로 갈팡질팡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효숙(장년3교구)
- 남편 퇴직 후 서로 배려하며 다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 감사합니다. 남편 재취업의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 감사합니다. 박외숙(장년1교구)
- 작은아들 직장 좋은 곳으로 8월에 이직시켜 주시고 9월에 살던 집도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정확한 때에 잘 해결해 주셨으며, 이해하기 힘들었던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을 갖고 마음을 다스리며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어 좋은 관계로 잘 회복되었습니다. 꿈의 그린 주야간보호센터 전도에도 자원하여 전도하러 갔지만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내 피부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백란(장년3교구)
- 작정기도를 작정할 때 나는 내 골방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 정한 시간 외에도 많이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는 작정기도 시간에 시간을 맞추어 기도를 하지 못했다. 교회의 지속적인 권유도, 마음의 찢림도 나를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이유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을 알았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반하여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긴 시간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처음이다. 부끄럽지만 이번 작정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는, 우선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세우야 한다는 것과 나를 믿지 말고 은혜의 도구나 방편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 다음번 작정 기도 기회가 있다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신지혜(장년6교구)
- 코로나로 인해 대면예배를 못 드린 지 오래 되자 첫째 아이가 온라인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자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도 신앙적으로 침체된 상태여서 아이의 마음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마음을 쏟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여 뒤 대면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함께 갈 줄 알았던 아이가 주일에 약속을 만들어 나가거나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대면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이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아이와 예배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의 마음도 헤아리며 예배에 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늘 기도할 때마다 첫째 아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5개월여가 지나 아이는 주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에 가는 준비를 하고, 약속이 있더라도 예배가 끝난 시간으로 잡는 등 예배를 당연시하는 모습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아직은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보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늘 당연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아이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연희(장년6교구)
- 고3 둘째 아들과의 문제로 기도하는 중에 저의 자녀를 향한 회심을 하게 되었고, 2월에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1억이 넘게 오른 전세자금 마련 문제와 이사로 인한 여러 지출 비용 등이 낭비되지 않길 기도했는데 집주인이 상생임대로 재계약하자고 해서 5% 올리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전세 시세보다도 더 저렴한 전세로 다시 2년이 보장되었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이성춘(장년4교구)
- 은혜에서 멀어지고 영혼의 황폐함을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정정금(장년5교구)
-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작정기도를 통해 주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작정기도를 통해 자기 깨어짐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을 좇아 행하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바른 신앙 생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허진주(장년5교구)

경주자(교역자칼럼)2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



최영광 소년부 (부) 전도사  
ykyo5707@gmail.com



2020년, 신학을 배운다는 부푼 꿈을 안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신학자의 길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목사님께 들었던 신학대학원의 삶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팬데믹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2년 넘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었고, 하루 동안 몇 마디도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밤새 영상을 보면서 아침 늦게 일어나 수업을 듣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았고,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대학생인가 사이버 대학생인가? 어떤 교수님이 수업 중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대면 수업의 필요성이 학교 공동체에 공유되었고, 올 4월부터 대면 수업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전교생이 학교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를 찬송했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찬양과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찬양 소리에 저도 더욱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도 하고, 옆 사람의 기도 소리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간절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흠어져 있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몸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아침과 점심마다 한자리에 모여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수업 시간에는 수업 때 느낀 점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있는 양지 캠퍼스는 자연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학교에 들어오면 아늑한 분지 형태의 전

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산들과 꽃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학교를 걸으며 하늘과 구름을, 나무와 풀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놓으신 광대한 모습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커피와 음료를 마시고, 밤에는 기숙사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은혜와 감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있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여럿이 하나로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공동체로 지으셨음을 느낍니다. 함께함이 기쁘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업 전 짧은 시간이지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공유하며 오늘도 한 몸이 되어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공동체를 배우게 됩니다. 서로를 이끌어주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입니다. 2년간에 외로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저 또한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며 오늘도 성장해 갑니다. ☆

특별작정기도 후기

#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



이선숙 장년4교구  
pinksun777@naver.com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누구신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과 예배 후 주는 사탕과 과자에 마음이 끌려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 지가 거의 30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감격되어서 열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스럽던 시간은 꾸준한 경건생활이 없는 저의 삶 속에서 곧 지나간 과거의 영광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에 교회를 떠날 용기는 없고, 그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삶이 변하고 기쁘다 하는데 제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지, 왜 나는 의지로만 믿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고민에서 끝이 날 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삶은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흥내는 어느 정도 낼 수 있었으니 신앙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그저 예배에 참석할 때에만 하는 그런 한 의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고,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또 한편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상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그렇게 술술 나오던 말들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시간에는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야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 또한 그렇듯이 가끔 찾으니... 기도는 자주 끊기고 중언부언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답답함에 기도학교에도 등록해서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 기도의 발전이 없는 이유에 대해 배우고, 많이 느끼며 실제적으로 기도도 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까지였습니다. 죄사함과 진심을 담지 못한 기도는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7년을 휴직해왔던 회사에 사표를 낸 이후 나타난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병에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좀 살려주시라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살려주시기만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특별작정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무조건 교회로 갔습니다. 기

도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5분도 기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를 기도시간을 보내고 좌절하며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주님 뜻에 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나를 이렇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심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아침을 깨우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가슴 답답함과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멀리하던 성경말씀들이 이해되고, 재밌기까지 하는 몹시 생소하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꾸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제 평생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생긴 겁니다. 무질서하던 삶이 조금씩 질서를 찾아가고 늘 불평하던 입술에 감사함이 깃듭니다.

나의 안위만을 구했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밋기만 했던 남편이 가없고, 나를 힘들게만 했던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기도 중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떠오릅니다. 기도 부탁을 받을까 봐 피했던 제가 먼저 기도제목을 물으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던 꾸준한 기도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핑계로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기도로 한 발자국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낙심되고, 쉽게 또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 감사는 끊어지고 불평과 불만들이 다시 저를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 작아졌던 삶의 문제들이 다시 폭풍처럼 크게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하기는 어렵고 기도하지 않기는 너무나 쉬운 어리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라고 가을말씀사경회로 부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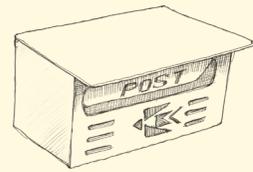
사경회 첫 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가는 길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포근합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나부끼는데 어서 오라고 저를 부르는 손짓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떠났어도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행복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

곰곰이 생각

## ‘응답 불필요’한 기도

글·그림: 나동훈  
gonggom2@designzip.co.kr

그날, 우편함에는 편지들이 쌓였다.  
기다리던 편지들은 안 오고,  
‘반송 불필요’가 표기된 편지들만 가득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편지들이다.  
바로 버렸다.



뭐야!  
나랑 뭘 상관이지!



어느 날, 내 기도가 그렇지 않나 싶었다.  
기대하시는 인격적인 고백은 안 하고,  
‘응답 불필요’한 기도만 하지 않았나 싶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 안 하는 기도만 하지 않았나 싶었다.  
바로 버리실 기도만 한 것 같았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7~9절)

## 포토에세이

사진 : 김범무(장년6교구)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



김정옥 장년교구  
kjo6825@hanmail.net

만남 품은 열린교인

# 사소한 돌맹이, 작은 종지 되어

저는 모태신앙, 믿음의 가정...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가정과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의 제 삶에 평안함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깊은 외로움과 고독, 그 무엇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홀로인 듯한 외로움 속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8살쯤 언덕 위에 있던 천막교회에 달려가 예배드릴 때 전도사님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대표 기도를 시키셨는데 다른 것은 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으나, 그 주기도문은 제 가슴에 각인이 되었고 잊혀지지 않고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천막교회는 생애 처음 가본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 시간을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유년 시절의 나의 어두움도 표면적으로는 희미해진 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 친구 엄마 집에 초대되어 그들의 구역예배에 일찍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끌리듯 열린교회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입회신청서를 쓰고 펜을 딱 놓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 이제 살 것 같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파닥대며 겨우겨우 숨 쉬다 다시 살 수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린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였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지난 어린시절 천막교회에 달려가던 제 모습을 시작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참으시고 세상 속에 갈 길 몰라 헤매던 저를 노심초사 돌보시며 하나님을 찾기까지, 그분의 품을 갈망하기까지, 당신의 창조 목적으로 돌리시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사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회심의 경험 이후로 저질 체력인 제가 새벽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육신과 싸워가며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해야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일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새벽기도>라는 책을 읽고 새벽기도에 대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예, 충성!'하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기 바로 전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찬양이 흘렀고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성경책 구약과 신약도 구분하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집필하신 신앙서적은, 저의 무지함의 성애가 낀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이면서 창 너머 풍경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라는 존재의 이유와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전의 앎과는 다른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상철언> 책을 통해서 더욱 깊은 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감히 십자가를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감히 함부로 안다 할 수 없음을... 이 죄인이 감히, 감히 십자가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음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나의 주님! 십자가 보혈은 내게 생명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요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제게 너무도 귀하기에 흐트러지거나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초대되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섬김이라는 말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섬김이라니... 내 영혼에, 내 삶에 더 유익한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교회 모퉁이의 사소한 돌맹이라도 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밥상 위의 작은 종지라도 되어 무엇이든 담아 올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물었던 제 심령!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제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제 생명이며 삶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슬픈 마음이 듭니다.

비천한 자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인생에 나란 존재는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 강도사 김수민 홍명철
-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이월순 정명원
-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 파송선교사

-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 안양 8, 8-1 군포 540, 8
-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